

신정부 신경제정책

산업자원부 주요업무 보고

주요정책과제

1. 무역수지 흑자기반의 구축

과 제 1 : 금융애로와 원자 재난을 타개하고 수출과 무역흑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과 제 2 :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확대유치할 수 있는 방안

3.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육성

과 제 3 : 고용창출과 실업을 예방하고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4. 산업 경쟁력의 예방

과 제 4 : 우리기업이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과 제 5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무역수지흑자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과 제 6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하여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방안

5. 에너지 수급안정과 소비절약의 강력한 추진

과 제 7 : 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산업활동 지수를 위한 에너지 수급대책

과 제 8 : 국제수지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I. 최근 실물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 현황

최근 무역흑자가 늘고 있으나 주로 수입감소에 기인하여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이며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산업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자칫 실물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 수출 :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의 어려움으로 환율상승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부도율 : 1월중 0.53%를 기록하여 92~96년수준(0.12~0.17%)에 비해 약 4배 상승

· 산업생산 : 1월중 제조업 가동율이 68.3%로 낮아지고 산업생산도 10.3% 감소

· 설비투자 : 전년대비 33% ~36% 감소 예상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통관기준, 억불, %)

	97	98.1~3.15	연간전망
수출	1,362	254(12.6)	1,475(8.3)
수입	1,446	196(△35.8)	1,225(△1.3)
무역수지	△85	58	250

· 실업: 1월중 4.5% (934천명)로 대폭 증가

■ 정책과제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

◆ 에너지 소비절약의 과감한 추진으로 무역수지개선을 뒷받침

35.8% 감소한 196억불로 5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금모으기 수출(20억불)을 제외하면 3.8% 증가에 불과하다.

○ 당면애로를 타개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금년에 무역흑자 250억불 이상을 달성(국제수지기준 약 300억불)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금융·원자재 애로, 동남아 외환위기의 지속, 중국의 평가절하 가능성, 주요시장의 수입규제 움직임 등 걸림돌이 있다.

■ 무역금융 및 원자재애로 현황

○ 지난해 12월 이후 극심했던 수출금융 애로는 다소 완화되어, 수출환어음 네고실적은 외환위기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고금리, 무역어음의 할인애로, 외환취급수수료 인상(1.5~7.5배)으로 업계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외상수입이 부진(은행의 L/C개설 기피)하여 동광석, 원피 등은 재고부족으로 가동율이 저하되고 있다.

■ 수출증진과 무역흑자 확대를 위한 대책

○ 당면한 무역관련 금융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금융권의 L/C 개설을 독려하고, IBRD 자금을 활용하여 수입지원(30억불),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1,000→3,000억원)

○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수출지원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수출보험 인수 확대(15조원→20조원 이상),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24억원→64억원) 및 무역전시장 건립

○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대책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 해외바이어초청 구매상담회(7회) 개최 및 국별 수출 유망 품목(2,050개 목표) 발굴로 바이어와 수출업체를 연결

○ 수출과 투자유치 애로를 타개하고 지원시책의 발판을 위하여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전 산업계와 모든 부처가 수출확대에 진력하도록 독려토록 한다.

○ 수출 급증으로 우려되는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산업협력단 파견(중남미, 미국, EU 등(연 5회)) 할 예정이다.

II. 주요 정책과제

1. 무역수지 흑자기본의 구축

과제 1 : 금융애로의 원자재난을 타개하고 수출과 무역흑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 최근의 수출입 동향과 전망

○ 98. 1. 1~3.15일간 수출은 12.6% 증가한 254억불, 수입은

〈외국인 투자현황〉

		(백만불, %)			
구 분		95	96	97	98
총 투자		1,941	3,203	6,971	130
	증가율	47.4	65.0	117.6	△85.1
제조업 비중		45.5	60.3	33.7	34.6

〈98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소요〉

		(억원)		
구 분		98 소요액(A)	98 확보액(B)	부족액(A-B)
○ 중소기업 구조개선		20,000	8,700	11,300
○ 벤처기업 창업지원		9,000	300	8,700
합 계		29,000	9,000	20,000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과 제 2 :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확대유치할 수 있는 방안

■ 외국인투자 현황

○ 97년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8. 1월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높은 공장용지가격, 각종 행정규제, 미흡한 투자유인제도와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인식으로 경쟁국에 비해 투자유치가 저조하다.

■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금년중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IBB(영국), MIDA(말

련)를 벤치마킹하여 KOTRA의 투자유치 기능과 정부의 인·허가 기능을 통합하는 one-stop 서비스 체제 도입

－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여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

○ 98. 4월중 우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을 KOTRA와 합동운영,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강화에 주력한다.

－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 담당관 파견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이 시·도와 협조하여 인·허가 대행처리

－ 산업단지공단을 활용하여 입지선정·공장설립 대행처리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개편

○ KOTRA를 「외국인투자유치 서비스 전담기구」로 개편, 무역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한다.

－ 미·일·EU소재 KOTRA 주요 무역관에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

○ 세계적 기술기업을 주요유치대책 기업으로 선정(현재 177개)하여 집중유치 한다.

○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기업별 담당관제」를 도입하여 투자환경 조사, 서류제출 지원 등 밀착서비스 실시한다.

○ M&A, portfolio 투자와 벤처자본 유치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한다.

■ 인센티브의 확충

○ 아시아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유인제도를 확충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폭 확대

－ 장·단기 해외차입제한 완화, 의료보험 등 차별철폐

○ 대형 project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협의시스템을 도입한다.

3.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육성

과 제 3 : 고용창출과 실업을 예방하고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 98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소요

■ 중소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 ADB자금 10억불을 통해 특별신용보증을 실시(98. 1. 12)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자금은 조기 집행(69개기관 30조원)

○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금년에 총 2조원을 투입하여 5,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 부족액 1조 1,300억원은 비실명장기채 발행과 IBRD자금 활용을 통해 조달한다.

○ 현재 2,000여개인 벤처기업을 향후 5년간(98~2002) 2만개로 육성한다.

- 금년중 9,000억원을 투입하여 3,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부족재원은 비실명장기채 발행과 IBRD자금으로 조달

4. 산업 경쟁력의 강화

과 제 4 : 우리기업이 세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추진상황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부담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98. 2. 1개 관련법을 개정)한다.

○ 대기업은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계열사정리 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M&A시장이 취약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생산설비·인력 등 경제적 자원이 유희화되는 실정이다.

■ 보완대책

○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세계시장 동향 및 중장기 전망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으로 전문작업반을 구성(98. 4)한다.

○ M&A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상공회의소내에 「M&A 거래소」를 개설하고(4. 15일 발족예정)

-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한다.

○ 기업간 설비교환, 공동기술 개발 등의 매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조합 등 업종별 단체(85개)의 기능을 보강한다.

과 제 5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태

○ 수출이 대기업형 업종인 반도체·자동차·철강 등에 편중되고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미약하다.

[총수출중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6대업종 비중 : 38.05(97)

○ 기계·부품·소재 등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고착되고 있다.

[기계류 수입의존도 : 한국 27.0%(97) 일본 6.0%(94)

97년 전체무역적자 85억불중 자본재 무역적자가 66억불 차지

○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이며, 품질·마케팅 등의 경쟁력도 크게 미흡하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섬유 등 전통산업은 디자인·패션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전환을 촉진한다.

- 대표적 섬유산지인 대구를 「아시아의 섬유중심지」로 육성

○ 정보통신,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 산업계·학계·정부 등으로 「신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98. 4)하여 신산업분야 선정 및 발전방안 수립하며 자금, 인력, 입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한다.

○ 자본재산업을 육성하여 무

역수지 적자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 「핵심 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98~2002)」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자본재의 국산화를 위한 자금지원(98 : 2,220억원)

○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애로기술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98 : 6,528억원)

－ 산업의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지역기술혁신법」을 제정

－ 특허처리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3년→2년)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증원하고 제도개혁을 추진

○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첨단기술·경영노하우 등 기업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방지(98 상반기)

－ 외국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과 제6 :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하여 모든 규제 를 과감히 개혁하는 방안

■ 그간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

○ 93~97년간 6,323건의 규

제완화를 추진하였음에도 외국인 은 물론 국민들도 아직 정부가 규제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

－ 절차간소화 등 단편적인 규제완화에 치중하여 공장설립 및 입지·물류 등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은 미흡

－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이해집단·기득권층의 반발에 따라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과감한 거래

○ 공장설립은 「선 승인」 후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

○ 경제단체에 기설치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

－ 중점분야 : 외국인투자, 공장설립 및 입지, 물류, 환경분야

○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담당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도 병행한다.

5. 에너지 수급안정과 소비 절약의 강력한 추진

과 제7 : 경제의 인정과 원활한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에너지 수급대책

■ 최근의 수급동향 및 조치

○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소세 징수유예 등 신속 대응으로 수급 차질 해소한다.

－ 97년말 석유수입애로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소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조치 등으로 자금난을 완화

－ 환율상승에 따라 석유, 가스, 전기요금을 적기 조정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하여 네온사인, 전광판 등 사용제한 실시

■ 에너지 수급안정대책 추진

○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수요를 관리한다.

－ 울진 원전3호기 등 10개 발전소 준공(420만kW 증설)

－ 에너지 절약형 기기보급 지원 등 수요관리 강화

○ 가스공급 전국배관망 완공 및 제3인수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 금년중 광주~창원구간의 배관망을 준공하고, 향후 남부권의 LNG 안정공급을 위해 통영인수기지 건설 추진

○ 석유수급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석유제품 공급(난방용 등유)

○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 국내 대륙붕 개발 추진(98년중 제6-1광구 고래V구조의 1공 시추)

－ 해외자원 개발 지원자금의 확대(97 : 986억원→98:1,092억원)

**과 제8 : 국제수지 개선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대책**

■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

-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다.
-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4위,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 85년 이후 에너지 소비증가율(연평균 10.4%)이 GDP증가율(8.9%)을 상회
- 무역수지개선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키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이 불가피하나 절약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

■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

- 에너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한다.
- 물가영향,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산업용 보다는 소비성 에너지가격을 중심으로 상향조정
- 각 수요부문별로 강력한 절약시책을 추진한다.
- 산업부문 : 에너지 다소비업체 (190개)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 관리 진단·지도

수송부문 :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확대 및 차량운행부제 등 실시

가정·산업부문 : 가전제품의 초저효율기준제도를 확대하고 신축 건물에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

○ 「에너지절약 추진회의」,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절약분위기를 확산한다.

○ 에너지 수입액을 전년대비 15%(41억불) 감축(97년 271억불→98년 230억불)한다.

휴대전화, 컬러모니터 생산량 동아시아 9개국중 '1위'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을 제외한 대만·중국·필리핀·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9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한 전자·정보통신 제품은 휴대전화와 컬러모니터 2개 품목뿐이며 이들 품목마저 중국과 대만이 생산을 크게 늘려 바짝 추격하고 있는 등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의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97년 동아시아 9개국의 주요 전자·정보통신기기 생산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휴대전화와 컬러모니터

를 각각 750만대, 1,800만대 생산해 동아시아 9개국 중 가장 많이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경우 중국이 676만대, 컬러모니터는 대만이 1,570만대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컬러TV의 경우 1,670만대를 생산, 1,900만대를 생산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VCR와 비디오 일체형 TV도 각각 1,130만대, 237만대를 생산, 말레이시아(VCR 1,273만대, 비디오 일체형 TV 273만대)에 이어 두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PC의 경우 대만(1,020만대) 싱가포르(410만대)에 이어 세번째인 330만대를 생산했으며 라디오카세트는 중국(7,380만대), 말레이시아(460만대)에 비해 크게 뒤지는 128만대를 생산했다. 특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는 가장 많이 생산한 말레이시아(6,360만대)의 10분의 1도 안되는 540만대를 생산, 4위를 기록했으며 헤드폰스테레오도 중국(4,217만대)에 크게 뒤지는 115만대를 생산해 5위를 차지했다.